



김준형 기획재정부장

천일염 판매사업 미등록 식품위생법 위반 미등록 무자료 거래 의무 위반 조세법

천일염(식염)을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증빙서류(계산서 등)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법규상 조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세무상의 문제 (미등록 및 무자료 거래)
천일염은 면세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 가치세는 붙지 않지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

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소득세 추정: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뒤늦게 적발될 경우, 본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20~4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2.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 위반
천일염은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소분하거나 판매할 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영업 미신고 판매: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등) 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다.
• 표시기준 위반: 원산지, 성분, 생산자 등을 규정대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조세법 처벌법 적용 가능성
거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탈세의

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자료 거래'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다뤄진다.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판매였다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사업자 등록: 지금이라도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면세사업자)을 하세요.
- 기한 후 신고: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는 방향을 검토해 보세요.
- 식품 판매 자격 확인: 관할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판매하려는 형태(소분 여부 등)에 맞는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기고

코스피 5,000시대

국민의 지갑과 여수의 경제는 어떻게 변하는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오랜 염원이었던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은 단순히 주가지수의 숫자가 바뀐 사건이 아니다. 많은 시민께서는 "코스피 5,000이 과연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실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성과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우리 기업의 미래 가치가 세계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 시작했고, 국가 경제 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스며드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가 국민의 노후와 지역 경제, 특히 여수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 노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의 체력 강화
가장 먼저 주목할 변화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성장이다. 국내 증시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코스피 5,000시대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평가된다. 지수 상승에 따라 국내 주식 자산 가치는 대규모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운용 성과를 통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많은 국민이 주가 상승이 당장 연금 지급액을 올려주는지 궁금해하지만,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주가가 아니라 물가다.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제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분만큼 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지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에서의 높은 운용 수익은 이 물가 연동제가 지속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기초 체력'이다. 즉, 물가는 오늘 내가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고, 코스피 5,000은 30년 후 우리 자녀 세대의 연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되는 셈이다.

성장의 결실이 삶으로 이어지는 경제를 위해
결국, 코스피 5,000은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이자,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창이다. 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그 성과가 여수와 같은 생산 현장의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은 경제 성장을 실감할 수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산 가치 상승의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퇴직연금과 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가를 띄우는 정치가 아니라, 성장을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정치다. 대한민국 경제가 5,000포인트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만큼, 여수의 현실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풍요와 안정된 미래를 향한 실질적인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 이광일

독자투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만드는 안전한 일상

화재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상당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다.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소화기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스프링클러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위급한 순간에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다. 이 제도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이를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전을 완성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 발생한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불법행위는 비상구와 피난통로 관리 소홀이다. "잠깐이니깐 괜찮겠지", "오늘만 막아두자"라는 생각이 쌓여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화재 발생이라는 단 한 번의 순간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과거 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아간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비상구 앞에 적치된 물건 때문에 대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언기 확산이 조금만 더 빨랐어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시설은 이전에 시민 신고로 비상구 관리 위반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신고가 없었다면 위험은 그대로 방치됐을 것이다.

신고포상제는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신고포상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시'나 '고발'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다. 목적은 오직 예방이다. 불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바로잡고, 더 큰 사고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시민 신고를 계기로 현장 점검과 안전지도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전통시장에서는 과거 시민 신고로 소화기 적치 불법행위가 시정된 이후, 실제 화재 발생 시 상인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한 번의 신고가 수많은 피해를 막은 셈이다. 안전은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다. 소방시설은 평소에는 존재를 잊기

쉽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단 하나의 생명줄이 된다. 그 생명줄이 불법행위로 무력화된다면, 화재는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사고가 아니라 재난이 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다. 생활 속 작은 관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신고하겠다"는 선택이 쌓일수록 지역사회는 더 안전해진다. 한 건의 신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한 가족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곧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안전한 일상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위승빈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음력 12월 18일)

43년생 고마운 도움에 금한 불을 꺼준다.60년생 혼자인의 생각결함인을 알아내자.72년생 꽃 그림 그려지는 호사를 누리보자.84년생 턱걸이 성적표 2위를 다시 하자.96년생 아сыл분 변명보다 잘못을 인정하자.	49년생 이름도 낯선 손님 금방 친구가 된다.61년생 기장 떨리던 순간만 세가 불려진다.73년생 원래의 자리 처음으로 돌아와.85년생 강까지 줄이던 공부 빛을 발해준다.97년생 젊은 행복이 이별 속 새가 남겨준다.	50년생 변한 건 아니다. 열정꽃을 피워보자.62년생 심했던 반대는 응원으로 돌아선다.74년생 불변한 조건에도 거래에 응해보자.86년생 귀한 가르침에 고를 속여.98년생 고통과 마주하는 용기를 깨워보자.
51년생 기껏 했던 고생 흔적도 안 남는다.63년생 아드웠던 마음에 희망이 발아한다.75년생 더없이 좋은 재에 빠져보자.87년생 조금씩 경험으로 완성을 향해가자.99년생 어른들의 세계로 등장을 서두르자.	52년생 괜한 불안감은 어디론가 사라진다.64년생 이름다운 사람이 눈으로 보여진다.76년생 자랑이 한 보따리 콧대가 높아진다.88년생 뼈뚫었던 살림 부자가 되어간다.100년생 길고 닦은 실력 시험대에 올라보자.	53년생 입기에는 미소.곳간이 든든해진다.65년생 부탁은 겸손하고 진중해야 한다.77년생 미소 소리 들어도 한길로 가야 한다.89년생 주인 없는 자리 욕심을 가져보자.91년생 충분한 이해반이 필요하다.
54년생 든든한 이웃이 새끼 새 아끼고 무 해보자.66년생 근사하고 맛있는 솜씨를 보여주자.78년생 공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90년생 마냥 살리지는 재안을 들여보자.92년생 부지런하고 성실한 마음을 올려보자.	55년생 웃음 나무다. 아슬을 경에 내자.67년생 애썼던 수고 배반감이 매겨진다.79년생 말한 없는 경사 호기를 부려보자.91년생 달라진 입지 찾는 곳이 많아진다.93년생 형만 한 아우 없다. 지혜를 발려오자.	56년생 말릴 수 없는 처지 구경에 그쳐보자.68년생 작은 약속에 위대함을 알아보자.80년생 지루하다 싶었던 부진을 벗어난다.92년생 누구라는 이름 크고 화려해진다.94년생 대단하다 칭찬 거듭함을 가져보자.
57년생 기세등등 위세 하늘까지 닿아간다.69년생 동전 한 닢의 가치 귀함을 지켜.71년생 금하면 손해 내는 거를 지켜.93년생 따가운 시선에도 자유를 가져보자.95년생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와 맞서기자.	58년생 생명 나무는 잔치 여유는 배가 된다.70년생 천릿길 잃었던 목표에 다다른다.82년생 낯설고 어끘도 출발선에 서보자.94년생 달님이 질투하는 만남을 가져보자.96년생 고된 노동 뒤에 달콤함을 볼 수 있다.	59년생 실수하지 않았다 되짚어봐야 한다.71년생 번거로운 결정도 반드시 거쳐보자.83년생 흔들리는 소신 중심을 잡아.95년생 도래는 도래끼리의리로 문쳐보자.97년생 응지에서 양지로 신분상승 해보자.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3,000원 · 1년 147,0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